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과 대성산종합병원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건설장을 돌아보시였다.

현지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화선선진, 화선선 등으로 들쭉이는 건설장을 보시며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고, 21세기의 공격속도, 《마식령속도》를 창조한 군부대의 전투장이 확실히 다르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살림집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이 솟은 살림집들을 바라보시며 외벽을 폭면으로 처리하니 마치 대동강에 떠있는 듯배처럼 보인다고, 건축의 조형예술성을 끊임없이 혁신해나갈데 대한당의 의도가 반영된 특색있는 멋쟁이건축물,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는 우리의 건축술을 과시하는 걸작품이라고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살림집의 밑단부분에 상점을 비롯한 편의봉사시설을 꾸려주니 보기에 도 좋고 안정감이 나며 복도와 전실사이의 출입구처리도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당에서 비준해준 설계의 요구대로 시공을 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건설에서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 군인건설자들의 일분새라고 하시면서 모든 건설부문에서 이들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골조공사와 내외부미장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가구제작도 동시에 내밀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한생을 바쳐가는 교육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살림집들을 많이 건설하여 교원, 연구사들에게 안겨주자는것이 당의 의도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생활에서 아무런 걱정이 없이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하도록 살림집을 더 건설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지금 건설하고있는 살림집을 축으로 대동강변에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500세대 더 짓고 봉사시설들도 꾸려주게 되면 웅근 하나의 거리가 형성될것



라고 하시면서 새로 일떠서게 될 거리의 이름을 《미래과학자거리》로 명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건설하는 거리의 내외부형성을 최상의 수준에서 멋들어지게 함으로써 건설에서 다시한번 혁명을 일으키는 계기로 되게 하자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과감하여 다음해 태양절까지 건설을 끝내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500세대를 더 지어주는 문제도 빠른 기간안에 검토하고 결심하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창건 기념일까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을 완공하여 교원, 연구사들에게 안겨주자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가 당의 의도를 실천으로 받들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대성산종합병원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렌트겐과, 초음파과, 병리해부과, 피부과, 집중치료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치료사업과 병원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에서 마련해준 설비들의 상태는 어떤가, 의약품은 제대로 보장되는가, 입원환자는 몇명이나 되는가를 하나하나 물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성산종합병원은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일떠선 인민군군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치료기지라고 하시면서 병원을 꾸려놓는데 만족할것이 아니라 치료사업과 관리운영을 잘하여 장군님의 사랑이 군인들에게 그대로 가닿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군인들속에서 반영이 대단히 좋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성산종합병원은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는 병원인것만큼 당의 보건정책관철에서도 앞장에 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병원의 물질기술적토대와 환자치료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에서 모두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병원에서 꾸린 공원을 돌아보시면서 나무도 많이 심고 산모길도 만들어놓으니 병원으로서의 체모가 더 잘 갖추어졌다고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입원실도 돌아보시면서 전투훈련중에 부상을 당한 군인들을 만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인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고 상처자리도 보아주시며 치료는 어떻게 하고있는가, 몸상태는 어떤가를 물어주시였다.

치료도 전투로 생각하며 아픔을 이겨낸 군인들의 정신력에 의해 치료성과가 좋으며 그들이 입원생활을 낙천적으로 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군인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함이라면 죽을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불굴의 강인성과 락천성은 인민군대의 고유한 기질이라고 하시면서 적들이 이것을 무서워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어 병원에서 보양을 받고있는 육아원과 애육원원아들을 만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애육원 원아들의 입원실들에 들어서시자 아이들이 저저마다 《원수님, 안녕하십니까?》, 《원수님, 안녕주세요.》 하며 원수님의 품을 파고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어리광을 부리는 아이들을 사랑의 한품에 꼭 안아주시며 혈색이 좋고 영양상태도 좋다고, 하나같이

이 보뽕보뽕한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몇살이나, 밥은 잘 먹느냐, 무엇을 하며 놀고있었느냐 다정히 물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물음에 꿈결에도 그리운 친아버지정을 느낀 아이들은 TV에서 아버지원수님을 뵈웠다고 씩씩하게 말씀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앞에서 원아들은 활기에 넘쳐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불렀으며 《아버지원수님 고맙습니다.》고 인사를 드리였다.

헤여지기 아쉬워 또다시 동동매여달리는 원아들을 달래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젖어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육아원 원아들의 입원실에도 들리시였다.

아직은 말을 제대로 번지지 못하는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와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한명 한명 다정히 품에 안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보육원들과 간호원들의 품에 안겨있는 애기들의 볼을 쓸어주시며 병원에 입원하기 전 애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면서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는 한시름 놓인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몸무게관찰표를 주의깊게 보시며 아이들의 몸상태가 나이에 맞게 정상상태에 이르렀다고, 3개월사이에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하시면서 그럴수록 마음을 놓지 말고 더 잘 돌봐주자고 당부하시였다.

원아들이 퇴원한 후에도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고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하자면 육아원과 애육원의 보육원, 교양원들이 그들에 대한 영양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품속에서는 허약한 아이들이 단 한명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늘 대성산종합병원에 찾아와 몸이 튼튼해진 원아들을 보니 대단히 기쁘다고 하시면서 친부모의 심정으로 온갖 지성을 다하여 아이들을 보양한 병원의 일군들과 군의, 간호원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대성산종합병원을 기쁜 마음으로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병원의 일군들과 군의, 간호원들이 환자치료와 병원관리운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루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축하공연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축하공연이 5월 19일 4.25문화회관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주제문학예술발전에 또 하나의 력사적리정표로 아로새겨질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를 마련해주시고 21세기 문예부흥의 위대한 진로를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전체 참가자들에게 따듯이 답례하시며 당사상전선의 전초병, 시대의 선도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는 그들을 고무해주시였다.

새시대 문학예술혁명의 기관차가 되어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선도해나가는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작창조기풍으로 당과 혁명이 요구하고 인민이 지향하는 시대의 송가, 최후승리의 진군가를 새롭고 특색있게 형상하여 환희로운 공연무대를 펼쳐

놓았다.

애국가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녀성독창과 방창 《사랑에 대한 생각》, 경음악 《백두의 말발굽소리》, 녀성독창과 방창 《바다 만풍가》, 《장군님 생각》, 경음악과 노래편곡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녀성독창과 방창 《내 심장의 목소리》, 녀성중창 《전선행렬차》, 경음악 편곡 《세계명곡류음》, 녀성4중창 《달려가자 미래로》, 중곡 《인민은 일원단심》의 종목들이 울렸다.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혁명열, 투쟁열을 백배해주는 종목들로 장내를 들끓다

으며 출연자들은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나래치는 시대의 벽찬 숲결, 사랑과 정으로 뜨거운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문명을 창조해가는 인민의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새로운 형식의 참신한 노래형상과 열정적이며 세련된 기악, 높은 예술적기량과 화려한 무대배경 등 황홀한 음악세계는 관람자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은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한 총진군대오에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 힘과 열정을 북돋아주는 모란봉악단의 공연

은 새로운 문학예술혁명의 포성으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를 승리와 번영의 최전성기로 빛내어나갈 문학예술인들의 철석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전체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사상에 솔직으로 완벽한 공연을 펼쳐보인 출연자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어 공연성공을 축하하시였으며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듯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절세 위인의 음악세계에 매혹되어 (1)

새 시대 문학예술혁명의 기관차가 되어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선도해나가는 모란봉악단의 끼칠 줄 모르고 진할 줄 모르는 생기와 약동은 오늘 강성국가건설과 사회주의문명건설에 떨쳐나선 온 나라 인민의 가슴마다에 무한대한 힘과 열정을 북돋아주고 있다.

태어난지 불과 2년밖에 안되는 모란봉악단의 이 눈부신 성과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재적인 음악실력과 현명한 령도가 걸음걸음 깎아다듬어 주었다.

하기에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이번에 진행된 제9차 전국예술인대

회의 높은 연단에서 자기들이 체험한 위인의 음악세계에 대해 끝없는 환희와 격정에 넘쳐 궁지놓이 토로했던 것이다.

필자는 그들의 토론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천재적이지와 뛰어난 천품을 보여주는 진귀하고 보석같은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더 생동하고 자세히 알려주고 싶어 이 글을 쓴다.

거리와 마을에서 울려나오는 진정 모란봉악단의 발전을 위해 새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무수한 자욱자욱은 진정한 인민의 예술, 참다운 인민의 음악을 창조하기 위해 그이께서 바치신 끝없는 사랑과 헌신의 나날이었으며 또 하나의 숭고한 인민행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처럼 끝없는 애민헌신의 날과 달이 있어 오늘 모란봉악단은 인민들의 사랑과 호평을 받고있으며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새것을 창조하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모란봉악단의 예술창조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시종일관 강조하신 문제가 있다.

작품창작에서 고리타분한것을 없애고 부단히 새것을 창조하라! 그러나 새것을 창조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자그마한 성과에 자만하면서 넓은 경험포도마리만 뒤지다니 새것을 보는 눈은 어느덧 멀어버렸고 열려진 문명을 향유하게 하시려는 뜨거운 인민사랑으로부터 출발하신것

심을 돌리지 못하고있었다. 악단의 창작가들속에서 나타나는 편향을 대변해 간파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생활력, 생명력이 있는 노래들은 물론 회미해져가나 문허버린 음악들을 찾아내어 새맛이 나게 편곡할데 대해 이 르시였다.

누구도 눈길을 돌리지 않던 기성작품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음악창조의 무한한 소재로 보시고 편곡이라는 창작의 활무대를 펼쳐주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창작가들과 예술인들은 민족의 음악재보를 귀중히 여기시는 뜨거운 사랑과 함께 새것을 대하시는 그이의 진취적이고도 혁신적인 창조자세를 가슴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그이의 창조적 세계는 그야말로 변화무쌍하고 파격적이였으며 새것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들어 설수 없는 위대한 세계였다.

—우리 식의 새로운 리듬을 계속 창조해야 한다.

—화성성직도 도식적인 틀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특색있게 해야 한다.

—노래편곡에서 기본선율과 밀착된 제2의 선율을 완전히 새롭게 뽑아내야 한다.

때로는 몸소 피아노를 치시며 편곡의 새로운 방법론을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또 연제인가는 우리 함께 노래선율을 완성해보자고 하시며 새 노래의 선율을 하나하나 완성시켜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가 있어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지난 시기 같으면 상상도 할수 없었던 대담한 창조방식으로 노래 《애국가》, 《슬리자들》과 같은 노래들을 독특한 편곡양상을 가진 작품들로 손색없이 완성할수 있었고 《내 조국강산에 넘치는 노래》, 《그대는 어머니》, 《그이 없인 못살아》, 《희망찬 나의 조국아》와 같은 약동하는 시대의 감정정서를 반영한 훌륭한 새 노래들을 련이어 창작할수 있었다. 이 나날에 10대의 나 어린 신인배우가 인민의 사랑받는 명가수로, 평범한 창작가가 영웅작곡가로 되었다.

모란봉악단 부단장 황진영은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하신 그 모든 가르침, 몸소 창작하신 선율들을 다 합치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새 세계 조선식음악총론, 김정은음악총론이 될것입니다.》

본사기자 김강철

진정한 예술은 어디에

사람들의 인가와 절찬을 받는 모란봉악단의 명성높은 실력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그에 대해 모란봉악단 단장 현송철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자신들도 놀랄만큼 짧은 기간에 온 나라 청년들과 인민들의 관심과 인기를 모으고 력사가 오랜 예술단체들에 못지않은 명성을 얻은 모란봉악단의 오늘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따뜻한 손길을 떠나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악단이 처음 조직되었을 때 창작가, 예술인들의 포부는 대단하였다고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히 지어 주신 《모란봉》이라는 악단의 이름은 세상에 떨칠 만만한 야심을 가지고 배우들은 세계적인 악단들이 내놓은 명곡작품들도 형상해보고 창작가들은 경음악에 대한 세계적인 발전추세도 연구하면서 기세충천하여 달라붙었다.

바로 이러한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자기 땅, 자기 터전을 떠나서 그 어떤 세계적인것을 기대하는 그들에게 모란봉악단이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는 길도, 세계적인 악단이 되는 비결도 바로 우리 인민이 좋아하고 즐겨부르는 음악을 창조하는데 있다. 다른 나라의 유명한 악단의 음악을 재보하여 형상하는것도 좋지만 민족음악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들이 사랑하는 노래를 가지고 그에 못지않게 만드는것이 더 중요하다, 선율을 위주로 하는

우리 음악의 우수성과 매력을 살려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인민들이 누구나 다 좋아하면 그것이 바로 세계적인것이고 진정한 예술이라는 인민존중, 인민제일주의의 철리가 맥맥히 흐르는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은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그때부터 인민이 좋다고 하는것들을 더 좋게, 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 애썼고 인민이 조금이라도 싫어하는것과는 주저없이 결별하였다. 공연을 할 때마다 관중의 눈빛과 거동, 박수소리에까지도 온 마음을 기울였고 일터에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언제나 사람들의 절찬을 받으며 진행되고있다.



평양의 보통강기슭을 따라 현 대적이고 웅장한 평양체육관, 인민문화회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그리고 병상관, 청류관, 장광원관과 같은 건축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섰다. 주객기구를 형성하며 천리마거리, 락틴거리 등이 길게 뻗어있다. 유원지, 공원들이 자리잡고있고 운하를 따라서는 보트장, 수영장과 겨울한철 리용하는 스케이트장도 마련되었다.

5월의 룩음방조 우거진 강변은 공원화, 원림화되어 그 풍치는 참으로 이룰데 없다. 보통강반을 보면 평양을 가리켜 《공원속의 도시》라고 이르는 까닭을 가히 알수 있는것이다.

강변을 거슬러오르면 문화산기슭의 등덕에 있는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이 유달리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수많은 기계총 사람들이 오르내리려는 기념탑을 찾으면 보통강반의 력사와 전변을 두고 전세대들은 감회가 깊어지고 후세들은 다시금 새로이 알게 된다.

보통강을 길들여 국토의 일면을 변모시키고 민족번영의 귀중한 재부를 창조한 보통강반의 새 력사를 기념하는 길이 전하고있는것이다.

그날날 보통강은 봉화산동쪽기슭을 구불구불 감돌아 보통강을 적시며 대동강으로 흘렀다. 치산치수를 하지 않은탓에 년년이면 보통강물이 범람해 이 일대의 인민들은 큰물피해를 당하였다. 《제난의 강》, 《원한의 강》, 《눈물의 강》이라는것이 보통강

의 대명사였다. 1942년 한해에만도 큰물로 해서 5만여명의 주민들이 인적, 물적피해를 입었다. 2 000여정보의 농경지가 류실되고 1 000여호의 농가가 침수되는 참사가 빚어졌다. 도성량과 서평양일대, 대략령지구의 물관리는 레상사였다. 가뜩이나 보통강사람들이 사는 곳을 가리켜 거지촌, 빈민촌이라고 불렀는데 수해까지 겹치면 말그대로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되곤 했다.

어린시절 보통강을 오가며 인민들이 겪는 불행과 고통을 목격하며 그들의 가혹한 정상을 사무치게 마음속에 새겼고 항일의 나

5월의 보통강반에서

날에도 언제 한번 보통강반 인민들의 눈물겨운 운명과 생활을 잊은 적 없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후 인촌 보통강개수공사를 구상하셨다. 것처럼 어렵고 복잡한 건국사업으로 다망하신 속에서도 보통강개수공사를 발기하신 수령님께서서는 여러차례 현지를 찾으시어 설계도면도 보시고 공사를 하루빨리 다그치기 위한 방도도 가르쳐주셨다.

주체35(1946)년 5월 21일 보통강개수공사 착공식이 있었다. 그날 수령님께서서는 친히 착공식에 참석하시어 격려사를 하셨다. 그이께서는 격려사에서 보통강개수공사는 평양시민들이 애국적인 로동으로 민주주의 새 조선건설에 기여하는 첫사업이며 해방된 우리 인민이 처음으로 하는 대자

연계조사업이라고 하시고 보통강개수공사를 하여 평양을 큰물피해로부터 지켜내며 앞으로 보통강일대를 풍치좋고 아름다운 유원지로 만들도록 할데 대해 강조하셨다.

개수공사의 과제는 도시안으로 흐르는 물길의 흐름방향을 바꾸어 봉화산허리를 가로질러 흐르게 하는것으로서 통수로를 내어 새 물길을 형성하고 여러개의 제방을 쌓으며 강바닥을 파는것이였다.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서라도 자재의 힘으로 보통강개수공사와 같은 공사를 하나하나 완공

해야 한다. 우리는 이 공사를 그 누가 해주기를 바랄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곤난을 자체의 힘으로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건 설자들과 인민들을 고무격려하신 수령님께서서는 몸소 공사의 첫 삽

을 뜨셨다. 그이께서 첫 삽을 뜨신 보통강개수공사는 선견지명의 비범한 예지와 애국의 의지를 지니시고 보통강반에 오늘과 같은 천지개벽을 안아올 확고한 결심 밑에 지피신 새 조국건설과 대자연개조의 첫 봉화였다. 건국 30년대의 첫 봉화였다. 건국 30년대의 첫 봉화였다. 건국 30년대의 첫 봉화였다. 건국 30년대의 첫 봉화였다. 건국 30년대의 첫 봉화였다.

의 하루가 장래의 백날맞잡이라 고 하시며 장마철전으로 공사를 끝내도록 할데 대해 강조하셨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평양시민들은 일제가 300만명의 인력을 동원해 10년이나 끝내지 못한 그 공사를 단 55일동안에 계속했다. 지금과 같은 봉화산기슭으로부터 팔골다리를 지나 곧 주 대동강과 잇닿은 강물길이 생겨나게 되었고 평양은 영영 큰물피해를 모르는 도시로, 사람들은 보통강의 덕을 보는 항우자로 되게 됐다.

근 70년전 수령님께서 쓰신 애국의 첫 삽에서 국토건설의 새 력사가 펼쳐졌고 보통강반의 전변의 기적이 창조됐다.

5월의 보통강반은 볼수록 풍치수려한 경관이다. 운하를 따라 배놀이와 한강이고 신서교로부터 팔골다리에 이르는 유보도에는 낚시질풍경이 이채롭다. 공원과 유원지들은 퇴근길에 산책을 즐기는 근로자들로 붐비고 유희오락과 체육운동으로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로 흥성이다.

보통강반의 풍치에서 사람들은 건국의 초행길에서부터 국토관리와 전변의 오늘과 래일을 구상하시고 후대들에게 세세년전 아름답고 푸른 조국건설과 대동강주도록 하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애국의 일념과 비범한 령도, 크나 큰 업적에 대해 가슴뜨겁게 절감하는것이다.

승고한 인민사랑의 화폭을 펼치며

1957년 여름 어느날 저녁이였다. 황해남도 재령군 부덕리로 가는 길로 한 할머니가 걸고있었다.

사위네 집을 다녀오려고 떠난 그가 큰길에 나섰을 때였다. 등뒤에서 경적소리가 나더니 자도 단추가 로인결에 이르러 금정거렸다.

《할머니!》 하며 풍채좋은분이 차에서 내렸다. 길을 물으러나보나 하며 로인이 돌아서는데 그분의 물음은 뜻밖이였다.

《할머니 어딜 가십니까?》

《사위네 집에 갑니다.》

《사위네 집이 어디입니까?》

《사당골입니다.》

《이 길로 곧추 가면 되는지요?》

《예, 바로 신작로옆인걸요.》

《여기 라십시오.》

그분의 물음에 별생각없이 대

나들이길에 만난 고마운 분

답하던 할머니는 그만 얼떠름해졌다.

《이렇게 고마운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저 지나서 되겠습니까?》

로인은 주먹주먹하며 이렇게 말씀올렸다.

그분은 대답대신 빙그레 웃으시며 차에서 내리는 그를 거머쥐고 보침과 지팡이를 들려주시고나서 《할머니, 오래오래 사십시오, 조심하여 다녀가십시오.》라고 인사를 건네시였다.

차는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로인은 너무나 황송해 그냥 한자리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일마후 다른 승용차 한대가 할머니결에 나타나고 차에 탄 한 사람이 그에게 귀뻐해서야 앞차에 라신분이 위대한 김일성주석시였다, 공원, 유원지들이 바른 속도로 일떠서고 있었다.

《마식령수도》 창조의 불길속에서 천원수림지대인 마식령에 세계적인 스키장이 건설된데 이어 세계일류급의 아이들의 궁전과 현대적인 수상천년 잠자던 세포동관에 대규모의 현대적인 축산기지가 건설되고있으며 인민들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할 생산공장들과 문화후생시설들, 공원, 유원지들이 바른 속도로 일떠서고 있었다.

《나들이 열결을 백결음에 이 문것을 단 한결음을 내졌어 이룩하는 공화국의 단숨에의 정신, 조선속도는 비단 이곳에서 만 창조된것이 아니다.

《최근에 개건된 송도원국 제소년단야영소 준공식때에도 원수님께서 세상을 놀라우게 창조하신 조선속도를 창조하고 후대들에게 물려줄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를 마련한 군 인건설자들에게 감사의 주시였다.

본사기자 리경월



인민의 훌륭한 문화휴식터로 전변된 보통강반

시대를 주름잡는 《조선속도》

약동하는 젊음으로 날에날마다 눈부신 비약과 기적이 창조되는 공화국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가 태어났다. 바로 조선속도라는 말이다.

지난 4월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업을 앞둔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돌아보시며 이곳 수산사업소건설을 발기한 때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방대한 공사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조업을 눈앞에 둔것은 놀라운 기적이며 이것이야말로 조선속도라고 하시였다.

전국의 육아원, 육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 양로원들이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양하는 이 수산사업소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기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함만시설들을 고조시켜 준공한 후 본격적으로 조업을 시작하였다. 조업기간 동안에는 인민들의 관심과 호평을 받고있으며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새것을 창조하라!

그것은 령도자의 구상과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 하루를 백날처럼만들듯이 주름잡으며 이 땅위에 사회주의 부귀영화가 활짝 꽃피는 강성국가를 일떠세워가는 공화국의 모습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것이다.

남들이 열결을 백결음에 이 문것을 단 한결음을 내졌어 이룩하는 공화국의 단숨에의 정신, 조선속도는 비단 이곳에서 만 창조된것이 아니다. 《최근에 개건된 송도원국 제소년단야영소 준공식때에도 원수님께서 세상을 놀라우게 창조하신 조선속도를 창조하고 후대들에게 물려줄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를 마련한 군 인건설자들에게 감사의 주시였다.

본사기자 리경월

환희와 눈물의 두 세상입니다

나는 열일곱의 어린 나이에 병든 부모를 살리고 박정희 《정권》의 《경제부흥을 위한 해외인력수출》과도를 타고 고향이 있는 다도해를 뒤에 남긴채 대양건너 저 멀리 도이칠란트로 간 호수살이를 떠났었다.

그런 내가 근 반세기만에야 백발이 되어 고국방향을, 그것도 떠나온 남녘명이 아니라 나에게 생의 희망과 조선민족의 자부심을 안겨준 삶의 기둥, 마음의 고향인 북녘의 평양을 찾았다.

조국을 방문하면서 내가 특별히 감동 받은 것은 송도원백사장에 펼쳐진 환희로운 모습이었다. 정말 감동없이는 볼수 없는 장면들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남쪽에서는 대형객선침몰로 인한 대참사속이 전개됐다.

송도원백사장의 환희와 진도 앞바다의 눈물, 너무도 대비되는 판이한 두 현실은 나에게 참다운 조국, 민족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안겨주었다.

나에게 있어 또 하나의 충격으로 되는 그 확산을 이렇게 글에 옮겨본다.

나는 지난 4월 21일 평양에 오게 되었다. 숙소인 고려호텔에서 저녁식사후 TV를 켜니 방송원의 격조높은 목소리가 울리는 속에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시고도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선수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화면을 짝 채우고있었다.

오래동안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낸 직업적타성이라고 해야 할지 아이들의 야영소를 돌아보시는 김정원선수님의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은 나의 온갖을 순간에 사로잡았다.

우리가 1년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한다고. 이렇게 야영소를 개건해놓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하여 이곳에서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고 하신 그의 말씀은 자자구구 나의 심장을 울려주었다.

10여일이 지난 후 나는 TV를 통해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을 또다시 커다란 격정속에 접하게 되었다. 현대적인 야영각들이 바다를 향해 조화롭게 절경을 펼친 세계일류급의 야영소도 놀라웠지만 온종일 아이들속에 계시며 그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선수님의 모습은 나에게 이루 헤아릴수 없는 감동을 주었다. 인공잔디 펼쳐진

야영소의 새 경기장에서 전국소년체육대회 결승경기도 보아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최상급의 모란봉악단 예술공연도 야영소의 극장무대에 그대로 펼쳐주시고 밤늦도록 야영소의 마당가에 서서서 러져오는 축포를 향해 환호를 터치는 아이들의 모습도 미소속에 바라보는 원수님.

그이의 모습은 정녕 한없이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이었고 자애로운 스승의 모습이였다. 서방세계가 억측했던 조선의 《제4차 지하핵시험》보다 더 큰 진원이 되어 온 세상을 들뜨게 하는 아이들의 행복을 겨운 웃음소리는 나의 온갖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이끌었다.

나는 격양된 흥분을 안고 그달음으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았다. 내가 본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수십년간 풍속에서만 그려보던 아이들의 리상향보다 더 훌륭하고 멋진 세상에 들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 아이들의 천국이었다. 야영소에 꾸러진 모든 건축물들은 세계일류급이었다. 그것이 하나로 조화를 이룬 야영소의 모습은 그야말로 한쪽의 환상그림과도 같았다. 나는 지금껏 동유럽의 《전로아동센터》(《오개안야영소》)와 《미즈파》야영소, 어린이체육야영소(스바르파)며 아시아의 《나이랑담》국제어린이야영소도 다녀보았지만 이런 훌륭한 야영소는 처음이었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고 인간의 가치마저도 돈에 의해 결정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살아온 나는 슬관적으로 야영소의 투자비용을 추산해보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 융합함에 움츠러들고 세부의 심세성에 열이 나지 나의 생산능력과 상상력으로서는 도저히 그 답을 찾을수가 없었다.

나의 심정을 알아차린듯 동행한 녀성일군이 미소를 지으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갖는 절세의 위인들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이야기를 펼쳐놓았다.

...로부터 회포배설에 붉은 해 당화창기가 넘치는 명사실리와 세면이 푸른 소나무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송도원에 감싸여 마치고 공작새가 긴 꼬리를 꼭 편것 같다는 승혜의 명승 원산시, 여기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현지지도의 발자취를 새기신것은 지금으로부터 55년전인 1959년 6월이었다. 미제가 강요한 전쟁의 상처가 깊이 남아있는 원산시를 하룻밤에 복구하여 인민생활을 안정시키며 대한 과업을 주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그때 벌써 송도원백사장에 아이들을 위

한 야영소를 콕집히게 지휘하셨을 직접 발기하시였다. 온 나라가 어디 가나 복구건설로 들끓으며 한창의 벅들, 한의 세멘트가 귀중할 때였지만 그이께서는 포화여 그늘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나라를 달아주려고 하시며 야영소건설을 위한 막대한 국가자금을 뚝 떼어주시었다.

그후 1961년 9월 30일 강원도 일대를 현지도하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새로 훌륭히 일떠선 송도원야영소를 찾으시어 야영소자리가 참 명당자리라고 하시면서 이 송도원야영소야 참 좋지! 옛날에는 돈있는자들이 독점한 피서지였지, ...이 좋은 곳에 우리들의 어린것들이 마음껏 뛰놀아야지 라고 하시면서 매우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 한 일군이 출발도 백사장도 없고 바다는 수십이 앞아서 위협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자리를 달리 하려하고 아끼고있었는데 상상동지께서 여기에 소년단야영소를 지어주라고 하시어 이렇게 지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다. 그 일군의 이야기를 웃음속에 들어주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제일 좋은 자리를 어린이들에게 준것은 참 잘한 일이요, 그걸 누구에게 주겠소,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 주어야 하요, 제일 좋은것을!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아버지수령님의 아이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억척의 기둥으로 박아세우고 1960년 8월 17일 첫 야영의 문을 연 송도원야영소는 그후 절세위인들의 영웅보살핀속에 년대와 년대를 이어가며 더더욱 융화화려한 자태를 드러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미대결전을 치열하였던 1990년 대초 늘어나는 수요와 발전하는 시대적추세를 앞질러 이전의 야영소건물을 헐고 바다우에 두둥실 떠있는 큰 함대를 방불케 하는 1천여명 이상의 수용능력을 가진 새 야영각들과 시설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워주시었다.

1993년 3월, 온 나라에 준진시상태로 선포되던 그 엄혹한 시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아주시었다. 그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현대적으로 잘 꾸러진 야영소를 기쁨속에 돌아다니시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난관과 시련을 용감히 이겨내며 혁명을 계속 전진시켜나가는 중요 목적도 바로 후대들에게 세상이 부럼없는 행복을 마련해주자는데 있다고 당의 의도를 잘 알고 미흡한 점이 하나도 없게 잘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누구나

눈앞에 닥쳐올 엄혹한 전쟁에 대해서만 생각할 때 군 최고사령관이 아이들이 뛰놀게 될 야영소건설장을 찾은 경이적인 사실은 세상에 들도 없는 선군의 보검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고 가꾸어주시려는 행복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이북 야영소를 찾아주시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전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누구나 다 봐보고싶어하는 세계일류급의 야영소로 더욱 현대적으로 꾸러도록 은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참으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이 그대로 비껴있는 사랑의 궁전이며 온 세상 아이들이 부러워하는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천사들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다.

동행하였던 녀성일군이 들려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빛나지는 연혁사는 그야말로 아직까지 인류사가 알지 못하는 미래사랑의 대서사시였고 세계가 가늠할 수 없는 조선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절감하게 하는 명쾌한 해답사였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투자액》에 대한 답을 찾을수 있었다.

《후대들을 사랑하라!》

이 어둠골짜기에 천만금에도 비할수 없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투자액이 현시되어있고 아이들에 대한 절세위인들의 무한대한 《투자액》이 그대로 비껴 있었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숭고한 후대관에 의하여 태어나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보검에 의해 지켜졌으며 김정원선수님의 손길아래 세 세기 아이들의 탁월로 솟아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조선의 밝은 미래를 무궁도록 비껴안은 후대사랑, 미래 사랑의 위대한 기념비이다. 송도원 푸른 청춘을 북삼아 동해의 푸른 물을 먹삼아 나는 세기의 하늘가에 이렇게 쓰여졌다.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보여거든 아이들의 웃음과 환희가 만발하는 여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오시라!

무궁병영할 내 조국의 앞날을 여기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에

서 그려보는 나의 가슴속에 기쁨만이 자리잡고있은것이 아니다. 북부조국의 하늘땅에 어린이들이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있을 때 한지역으로 잇닿아있는 남조선의 바다에 과연 어떤 참혹한 현실이 펼쳐지고있는가.

3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세월》호참사의 기본 피해자들은 대다수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열일곱나이의 꽃망울들, 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 지금도 삶과 죽음의 계선에서 온갖 애발만 다했을 보화에도 비결이 없는 귀중한 우리 후대들에게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행복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이북 야영소를 찾아주시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전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누구나 다 봐보고싶어하는 세계일류급의 야영소로 더욱 현대적으로 꾸러도록 은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참으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이 그대로 비껴있는 사랑의 궁전이며 온 세상 아이들이 부러워하는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천사들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다.

동행하였던 녀성일군이 들려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빛나지는 연혁사는 그야말로 아직까지 인류사가 알지 못하는 미래사랑의 대서사시였고 세계가 가늠할 수 없는 조선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절감하게 하는 명쾌한 해답사였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투자액》에 대한 답을 찾을수 있었다.

《후대들을 사랑하라!》

이 어둠골짜기에 천만금에도 비할수 없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투자액이 현시되어있고 아이들에 대한 절세위인들의 무한대한 《투자액》이 그대로 비껴 있었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숭고한 후대관에 의하여 태어나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보검에 의해 지켜졌으며 김정원선수님의 손길아래 세 세기 아이들의 탁월로 솟아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조선의 밝은 미래를 무궁도록 비껴안은 후대사랑, 미래 사랑의 위대한 기념비이다. 송도원 푸른 청춘을 북삼아 동해의 푸른 물을 먹삼아 나는 세기의 하늘가에 이렇게 쓰여졌다.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보여거든 아이들의 웃음과 환희가 만발하는 여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오시라!

무궁병영할 내 조국의 앞날을 여기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에

다. 눈물과 울분의 이수라장으로 변한 진도앞바다를 그려보는 나의 눈앞에는 열일곱 꽃나이에 고향방향을 떠나 지역만리에서 고아마냥 헤매이던 불우한 지난날이 우뚝이 떠올랐다. 내역시 진도의 날바다에 버려진 꽃망울들처럼 이역땅에 내동댕이쳐진 인생이었다.

어찌보면 진도의 날바다에 수장된 꽃망울들은 《입양》과 《인력수출》의 미명하에 박정희가 이국땅에 내버린 꽃망울들의 분신일지도 모른다. 어제날 박정희 《정권》이 남녘땅에 뿌리를 둔 수천수만의 꽃망울들을 가지채로 못형 깬이 이역땅으로 팔아버렸다던 오늘을 박근혜 《정권》이 그리워 이어가고있다.

소위 《녀성정치》를 운운하며 살점들이 짓이겨져 형태도 알아볼수 없었다. 얼마나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으면 그렇게까지 되었겠는가. 술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그 어린것들은 자기 죽음에 이를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것이다. 아마 《세월》호에서 마치 막으로 울린 《기다리라》는 말로 순진하게 믿고있었을것이다.

《세월》호, 그것은 운항의 맛을 올릴 때부터 불행을 예고하였다. 아이들은 만재한 화물위에 덧쌓인 《인간화물》에 불과하였다. 하기에 선장과 선원들은 침몰하는 배에 그들을 남겨둔채 도망쳤고 당장 구원의 손길을 뻗칠것만 같던 직승기도 군함도 그들을 외면하였다.

거꾸로 뒤집힌 배가 완전히 바다에 가라앉기까지 2시간, 그 촌각을 다루는 속에서 구구조독권을 움켜쥔 간상배들은 살아숨쉬는 어린 생명들을 살인장부에 버티고 올려놓고 흥판을 벌렸다. 아직 피우지 못한 꿈을 안고 쓰러진 꽃망울들과 생애같은 자식들을 줄지어 잃은 부모들의 아픔을 외면한 박근혜는 《사파》는커녕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았고 청와대를 찾은 피해가족들을 마저 처벌하게 쫓아버렸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물론 미국의 《뉴욕타임스》, 《BBC》 등 세계의 언론들은 《세월》호의 어이없는 사고와 제2 《유신정권》의 리해할수 없는 무능력과 철권통치의 위대한 기념비이다. 송도원 푸른 청춘을 북삼아 동해의 푸른 물을 먹삼아 나는 세기의 하늘가에 이렇게 쓰여졌다.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보여거든 아이들의 웃음과 환희가 만발하는 여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오시라!

무궁병영할 내 조국의 앞날을 여기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에

다. 눈물과 울분의 이수라장으로 변한 진도앞바다를 그려보는 나의 눈앞에는 열일곱 꽃나이에 고향방향을 떠나 지역만리에서 고아마냥 헤매이던 불우한 지난날이 우뚝이 떠올랐다. 내역시 진도의 날바다에 버려진 꽃망울들처럼 이역땅에 내동댕이쳐진 인생이었다.

어찌보면 진도의 날바다에 수장된 꽃망울들은 《입양》과 《인력수출》의 미명하에 박정희가 이국땅에 내버린 꽃망울들의 분신일지도 모른다. 어제날 박정희 《정권》이 남녘땅에 뿌리를 둔 수천수만의 꽃망울들을 가지채로 못형 깬이 이역땅으로 팔아버렸다던 오늘을 박근혜 《정권》이 그리워 이어가고있다.

소위 《녀성정치》를 운운하며 살점들이 짓이겨져 형태도 알아볼수 없었다. 얼마나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으면 그렇게까지 되었겠는가. 술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그 어린것들은 자기 죽음에 이를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것이다. 아마 《세월》호에서 마치 막으로 울린 《기다리라》는 말로 순진하게 믿고있었을것이다.

《세월》호, 그것은 운항의 맛을 올릴 때부터 불행을 예고하였다. 아이들은 만재한 화물위에 덧쌓인 《인간화물》에 불과하였다. 하기에 선장과 선원들은 침몰하는 배에 그들을 남겨둔채 도망쳤고 당장 구원의 손길을 뻗칠것만 같던 직승기도 군함도 그들을 외면하였다.

거꾸로 뒤집힌 배가 완전히 바다에 가라앉기까지 2시간, 그 촌각을 다루는 속에서 구구조독권을 움켜쥔 간상배들은 살아숨쉬는 어린 생명들을 살인장부에 버티고 올려놓고 흥판을 벌렸다. 아직 피우지 못한 꿈을 안고 쓰러진 꽃망울들과 생애같은 자식들을 줄지어 잃은 부모들의 아픔을 외면한 박근혜는 《사파》는커녕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았고 청와대를 찾은 피해가족들을 마저 처벌하게 쫓아버렸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물론 미국의 《뉴욕타임스》, 《BBC》 등 세계의 언론들은 《세월》호의 어이없는 사고와 제2 《유신정권》의 리해할수 없는 무능력과 철권통치의 위대한 기념비이다. 송도원 푸른 청춘을 북삼아 동해의 푸른 물을 먹삼아 나는 세기의 하늘가에 이렇게 쓰여졌다.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보여거든 아이들의 웃음과 환희가 만발하는 여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오시라!

무궁병영할 내 조국의 앞날을 여기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에

다. 눈물과 울분의 이수라장으로 변한 진도앞바다를 그려보는 나의 눈앞에는 열일곱 꽃나이에 고향방향을 떠나 지역만리에서 고아마냥 헤매이던 불우한 지난날이 우뚝이 떠올랐다. 내역시 진도의 날바다에 버려진 꽃망울들처럼 이역땅에 내동댕이쳐진 인생이었다.

어찌보면 진도의 날바다에 수장된 꽃망울들은 《입양》과 《인력수출》의 미명하에 박정희가 이국땅에 내버린 꽃망울들의 분신일지도 모른다. 어제날 박정희 《정권》이 남녘땅에 뿌리를 둔 수천수만의 꽃망울들을 가지채로 못형 깬이 이역땅으로 팔아버렸다던 오늘을 박근혜 《정권》이 그리워 이어가고있다.

소위 《녀성정치》를 운운하며 살점들이 짓이겨져 형태도 알아볼수 없었다. 얼마나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으면 그렇게까지 되었겠는가. 술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그 어린것들은 자기 죽음에 이를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것이다. 아마 《세월》호에서 마치 막으로 울린 《기다리라》는 말로 순진하게 믿고있었을것이다.

《세월》호, 그것은 운항의 맛을 올릴 때부터 불행을 예고하였다. 아이들은 만재한 화물위에 덧쌓인 《인간화물》에 불과하였다. 하기에 선장과 선원들은 침몰하는 배에 그들을 남겨둔채 도망쳤고 당장 구원의 손길을 뻗칠것만 같던 직승기도 군함도 그들을 외면하였다.

거꾸로 뒤집힌 배가 완전히 바다에 가라앉기까지 2시간, 그 촌각을 다루는 속에서 구구조독권을 움켜쥔 간상배들은 살아숨쉬는 어린 생명들을 살인장부에 버티고 올려놓고 흥판을 벌렸다. 아직 피우지 못한 꿈을 안고 쓰러진 꽃망울들과 생애같은 자식들을 줄지어 잃은 부모들의 아픔을 외면한 박근혜는 《사파》는커녕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았고 청와대를 찾은 피해가족들을 마저 처벌하게 쫓아버렸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물론 미국의 《뉴욕타임스》, 《BBC》 등 세계의 언론들은 《세월》호의 어이없는 사고와 제2 《유신정권》의 리해할수 없는 무능력과 철권통치의 위대한 기념비이다. 송도원 푸른 청춘을 북삼아 동해의 푸른 물을 먹삼아 나는 세기의 하늘가에 이렇게 쓰여졌다.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보여거든 아이들의 웃음과 환희가 만발하는 여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오시라!

무궁병영할 내 조국의 앞날을 여기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에

다. 눈물과 울분의 이수라장으로 변한 진도앞바다를 그려보는 나의 눈앞에는 열일곱 꽃나이에 고향방향을 떠나 지역만리에서 고아마냥 헤매이던 불우한 지난날이 우뚝이 떠올랐다. 내역시 진도의 날바다에 버려진 꽃망울들처럼 이역땅에 내동댕이쳐진 인생이었다.

어찌보면 진도의 날바다에 수장된 꽃망울들은 《입양》과 《인력수출》의 미명하에 박정희가 이국땅에 내버린 꽃망울들의 분신일지도 모른다. 어제날 박정희 《정권》이 남녘땅에 뿌리를 둔 수천수만의 꽃망울들을 가지채로 못형 깬이 이역땅으로 팔아버렸다던 오늘을 박근혜 《정권》이 그리워 이어가고있다.

소위 《녀성정치》를 운운하며 살점들이 짓이겨져 형태도 알아볼수 없었다. 얼마나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으면 그렇게까지 되었겠는가. 술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그 어린것들은 자기 죽음에 이를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것이다. 아마 《세월》호에서 마치 막으로 울린 《기다리라》는 말로 순진하게 믿고있었을것이다.

《세월》호, 그것은 운항의 맛을 올릴 때부터 불행을 예고하였다. 아이들은 만재한 화물위에 덧쌓인 《인간화물》에 불과하였다. 하기에 선장과 선원들은 침몰하는 배에 그들을 남겨둔채 도망쳤고 당장 구원의 손길을 뻗칠것만 같던 직승기도 군함도 그들을 외면하였다.

거꾸로 뒤집힌 배가 완전히 바다에 가라앉기까지 2시간, 그 촌각을 다루는 속에서 구구조독권을 움켜쥔 간상배들은 살아숨쉬는 어린 생명들을 살인장부에 버티고 올려놓고 흥판을 벌렸다. 아직 피우지 못한 꿈을 안고 쓰러진 꽃망울들과 생애같은 자식들을 줄지어 잃은 부모들의 아픔을 외면한 박근혜는 《사파》는커녕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았고 청와대를 찾은 피해가족들을 마저 처벌하게 쫓아버렸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물론 미국의 《뉴욕타임스》, 《BBC》 등 세계의 언론들은 《세월》호의 어이없는 사고와 제2 《유신정권》의 리해할수 없는 무능력과 철권통치의 위대한 기념비이다. 송도원 푸른 청춘을 북삼아 동해의 푸른 물을 먹삼아 나는 세기의 하늘가에 이렇게 쓰여졌다.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보여거든 아이들의 웃음과 환희가 만발하는 여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오시라!

무궁병영할 내 조국의 앞날을 여기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에

다. 눈물과 울분의 이수라장으로 변한 진도앞바다를 그려보는 나의 눈앞에는 열일곱 꽃나이에 고향방향을 떠나 지역만리에서 고아마냥 헤매이던 불우한 지난날이 우뚝이 떠올랐다. 내역시 진도의 날바다에 버려진 꽃망울들처럼 이역땅에 내동댕이쳐진 인생이었다.

어찌보면 진도의 날바다에 수장된 꽃망울들은 《입양》과 《인력수출》의 미명하에 박정희가 이국땅에 내버린 꽃망울들의 분신일지도 모른다. 어제날 박정희 《정권》이 남녘땅에 뿌리를 둔 수천수만의 꽃망울들을 가지채로 못형 깬이 이역땅으로 팔아버렸다던 오늘을 박근혜 《정권》이 그리워 이어가고있다.

소위 《녀성정치》를 운운하며 살점들이 짓이겨져 형태도 알아볼수 없었다. 얼마나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으면 그렇게까지 되었겠는가. 술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그 어린것들은 자기 죽음에 이를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것이다. 아마 《세월》호에서 마치 막으로 울린 《기다리라》는 말로 순진하게 믿고있었을것이다.

《세월》호, 그것은 운항의 맛을 올릴 때부터 불행을 예고하였다. 아이들은 만재한 화물위에 덧쌓인 《인간화물》에 불과하였다. 하기에 선장과 선원들은 침몰하는 배에 그들을 남겨둔채 도망쳤고 당장 구원의 손길을 뻗칠것만 같던 직승기도 군함도 그들을 외면하였다.

거꾸로 뒤집힌 배가 완전히 바다에 가라앉기까지 2시간, 그 촌각을 다루는 속에서 구구조독권을 움켜쥔 간상배들은 살아숨쉬는 어린 생명들을 살인장부에 버티고 올려놓고 흥판을 벌렸다. 아직 피우지 못한 꿈을 안고 쓰러진 꽃망울들과 생애같은 자식들을 줄지어 잃은 부모들의 아픔을 외면한 박근혜는 《사파》는커녕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았고 청와대를 찾은 피해가족들을 마저 처벌하게 쫓아버렸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물론 미국의 《뉴욕타임스》, 《BBC》 등 세계의 언론들은 《세월》호의 어이없는 사고와 제2 《유신정권》의 리해할수 없는 무능력과 철권통치의 위대한 기념비이다. 송도원 푸른 청춘을 북삼아 동해의 푸른 물을 먹삼아 나는 세기의 하늘가에 이렇게 쓰여졌다.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보여거든 아이들의 웃음과 환희가 만발하는 여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오시라!

무궁병영할 내 조국의 앞날을 여기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에

다. 눈물과 울분의 이수라장으로 변한 진도앞바다를 그려보는 나의 눈앞에는 열일곱 꽃나이에 고향방향을 떠나 지역만리에서 고아마냥 헤매이던 불우한 지난날이 우뚝이 떠올랐다. 내역시 진도의 날바다에 버려진 꽃망울들처럼 이역땅에 내동댕이쳐진 인생이었다.

어찌보면 진도의 날바다에 수장된 꽃망울들은 《입양》과 《인력수출》의 미명하에 박정희가 이국땅에 내버린 꽃망울들의 분신일지도 모른다. 어제날 박정희 《정권》이 남녘땅에 뿌리를 둔 수천수만의 꽃망울들을 가지채로 못형 깬이 이역땅으로 팔아버렸다던 오늘을 박근혜 《정권》이 그리워 이어가고있다.

소위 《녀성정치》를 운운하며 살점들이 짓이겨져 형태도 알아볼수 없었다. 얼마나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으면 그렇게까지 되었겠는가. 술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그 어린것들은 자기 죽음에 이를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것이다. 아마 《세월》호에서 마치 막으로 울린 《기다리라》는 말로 순진하게 믿고있었을것이다.

《세월》호, 그것은 운항의 맛을 올릴 때부터 불행을 예고하였다. 아이들은 만재한 화물위에 덧쌓인 《인간화물》에 불과하였다. 하기에 선장과 선원들은 침몰하는 배에 그들을 남겨둔채 도망쳤고 당장 구원의 손길을 뻗칠것만 같던 직승기도 군함도 그들을 외면하였다.

거꾸로 뒤집힌 배가 완전히 바다에 가라앉기까지 2시간, 그 촌각을 다루는 속에서 구구조독권을 움켜쥔 간상배들은 살아숨쉬는 어린 생명들을 살인장부에 버티고 올려놓고 흥판을 벌렸다. 아직 피우지 못한 꿈을 안고 쓰러진 꽃망울들과 생애같은 자식들을 줄지어 잃은 부모들의 아픔을 외면한 박근혜는 《사파》는커녕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았고 청와대를 찾은 피해가족들을 마저 처벌하게 쫓아버렸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물론 미국의 《뉴욕타임스》, 《BBC》 등 세계의 언론들은 《세월》호의 어이없는 사고와 제2 《유신정권》의 리해할수 없는 무능력과 철권통치의 위대한 기념비이다. 송도원 푸른 청춘을 북삼아 동해의 푸른 물을 먹삼아 나는 세기의 하늘가에 이렇게 쓰여졌다.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보여거든 아이들의 웃음과 환희가 만발하는 여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오시라!

무궁병영할 내 조국의 앞날을 여기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에

다. 눈물과 울분의 이수라장으로 변한 진도앞바다를 그려보는 나의 눈앞에는 열일곱 꽃나이에 고향방향을 떠나 지역만리에서 고아마냥 헤매이던 불우한 지난날이 우뚝이 떠올랐다. 내역시 진도의 날바다에 버려진 꽃망울들처럼 이역땅에 내동댕이쳐진 인생이었다.

어찌보면 진도의 날바다에 수장된 꽃망울들은 《입양》과 《인력수출》의 미명하에 박정희가 이국땅에 내버린 꽃망울들의 분신일지도 모른다. 어제날 박정희 《정권》이 남녘땅에 뿌리를 둔 수천수만의 꽃망울들을 가지채로 못형 깬이 이역땅으로 팔아버렸다던 오늘을 박근혜 《정권》이 그리워 이어가고있다.

소위 《녀성정치》를 운운하며 살점들이 짓이겨져 형태도 알아볼수 없었다. 얼마나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으면 그렇게까지 되었겠는가. 술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그 어린것들은 자기 죽음에 이를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것이다. 아마 《세월》호에서 마치 막으로 울린 《기다리라》는 말로 순진하게 믿고있었을것이다.

《세월》호, 그것은 운항의 맛을 올릴 때부터 불행을 예고하였다. 아이들은 만재한 화물위에 덧쌓인 《인간화물》에 불과하였다. 하기에 선장과 선원들은 침몰하는 배에 그들을 남겨둔채 도망쳤고 당장 구원의 손길을 뻗칠것만 같던 직승기도 군함도 그들을 외면하였다.

거꾸로 뒤집힌 배가 완전히 바다에 가라앉기까지 2시간, 그 촌각을 다루는 속에서 구구조독권을 움켜쥔 간상배들은 살아숨쉬는 어린 생명들을 살인장부에 버티고 올려놓고 흥판을 벌렸다. 아직 피우지 못한 꿈을 안고 쓰러진 꽃망울들과 생애같은 자식들을 줄지어 잃은 부모들의 아픔을 외면한 박근혜는 《사파》는커녕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았고 청와대를 찾은 피해가족들을 마저 처벌하게 쫓아버렸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물론 미국의 《뉴욕타임스》, 《BBC》 등 세계의 언론들은 《세월》호의 어이없는 사고와 제2 《유신정권》의 리해할수 없는 무능력과 철권통치의 위대한 기념비이다. 송도원 푸른 청춘을 북삼아 동해의 푸른 물을 먹삼아 나는 세기의 하늘가에 이렇게 쓰여졌다.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보여거든 아이들의 웃음과 환희가 만발하는 여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오시라!

무궁병영할 내 조국의 앞날을 여기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에

다. 눈물과 울분의 이수라장으로 변한 진도앞바다를 그려보는 나의 눈앞에는 열일곱 꽃나이에 고향방향을 떠나 지역만리에서 고아마냥 헤매이던 불우한 지난날이 우뚝이 떠올랐다. 내역시 진도의 날바다에 버려진 꽃망울들처럼 이역땅에 내동댕이쳐진 인생이었다.

어찌보면 진도의 날바다에 수장된 꽃망울들은 《입양》과 《인력수출》의 미명하에 박정희가 이국땅에 내버린 꽃망울들의 분신일지도 모른다. 어제날 박정희 《정권》이 남녘땅에 뿌리를 둔 수천수만의 꽃망울들을 가지채로 못형 깬이 이역땅으로 팔아버렸다던 오늘을 박근혜 《정권》이 그리워 이어가고있다.

소위 《녀성정치》를 운운하며 살점들이 짓이겨져 형태도 알아볼수 없었다. 얼마나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으면 그렇게까지 되었겠는가. 술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그 어린것들은 자기 죽음에 이를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것이다. 아마 《세월》호에서 마치 막으로 울린 《기다리라》는 말로 순진하게 믿고있었을것이다.

《세월》호, 그것은 운항의 맛을 올릴 때부터 불행을 예고하였다. 아이들은 만재한 화물위에 덧쌓인 《인간화물》에 불과하였다. 하기에 선장과 선원들은 침몰하는 배에 그들을 남겨둔채 도망쳤고 당장 구원의 손길을 뻗칠것만 같던 직승기도 군함도 그들을 외면하였다.

거꾸로 뒤집힌 배가 완전히 바다에 가라앉기까지 2시간, 그 촌각을 다루는 속에서 구구조독권을 움켜쥔 간상배들은 살아숨쉬는 어린 생명들을 살인장부에 버티고 올려놓고 흥판을 벌렸다. 아직 피우지 못한 꿈을 안고 쓰러진 꽃망울들과 생애같은 자식들을 줄지어 잃은 부모들의 아픔을 외면한 박근혜는 《사파》는커녕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았고 청와대를 찾은 피해가족들을 마저 처벌하게 쫓아버렸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물론 미국의 《뉴욕타임스》, 《BBC》 등 세계의 언론들은 《세월》호의 어이없는 사고와 제2 《유신정권》의 리해할수 없는 무능력과 철권통치의 위대한 기념비이다. 송도원 푸른 청춘을 북삼아 동해의 푸른 물을 먹삼아 나는 세기의 하늘가에 이렇게 쓰여졌다.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보여거든 아이들의 웃음과 환희가 만발하는 여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오시라!

무궁병영할 내 조국의 앞날을 여기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에

다. 눈물과 울분의 이수라장으로 변한 진도앞바다를 그려보는 나의 눈앞에는 열일곱 꽃나이에 고향방향을 떠나 지역만리에서 고아마냥 헤매이던 불우한 지난날이 우뚝이 떠올랐다. 내역시 진도의 날바다에 버려진 꽃망울들처럼 이역땅에 내동댕이쳐진 인생이었다.

어찌보면 진도의 날바다에 수장된 꽃망울들은 《입양》과 《인력수출》의 미명하에 박정희가 이국땅에 내버린 꽃망울들의 분신일지도 모른다. 어제날 박정희 《정권》이 남녘땅에 뿌리를 둔 수천수만의 꽃망울들을 가지채로 못형 깬이 이역땅으로 팔아버렸다던 오늘을 박근혜 《정권》이 그리워 이어가고있다.

소위 《녀성정치》를 운운하며 살점들이 짓이겨져 형태도 알아볼수 없었다. 얼마나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으면 그렇게까지 되었겠는가. 술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그 어린것들은 자기 죽음에 이를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것이다. 아마 《세월》호에서 마치 막으로 울린 《기다리라》는 말로 순진하게 믿고있었을것이다.

《세월》호, 그것은 운항의 맛을 올릴 때부터 불행을 예고하였다. 아이들은 만재한 화물위에 덧쌓인 《인간화물》에 불과하였다. 하기에 선장과 선원들은 침몰하는 배에 그들을 남겨둔채 도망쳤고 당장 구원의 손길을 뻗칠것만 같던 직승기도 군함도 그들을 외면하였다.

거꾸로 뒤집힌 배가 완전히 바다에 가라앉기까지 2시간, 그 촌각을 다루는 속에서 구구조독권을 움켜쥔 간상배들은 살아숨쉬는 어린 생명들을 살인장부에 버티고 올려놓고 흥판을 벌렸다. 아직 피우지 못한 꿈을 안고 쓰러진 꽃망울들과 생애같은 자식들을 줄지어 잃은 부모들의 아픔을 외면한 박근혜는 《사파》는커녕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았고 청와대를 찾은 피해가족들을 마저 처벌하게 쫓아버렸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물론 미국의 《뉴욕타임스》, 《BBC》 등 세계의 언론들은 《세월》호의 어이없는 사고와 제2 《유신정권》의 리해할수 없는 무능력과 철권통치의 위대한 기념비이다. 송도원 푸른 청춘을 북삼아 동해의 푸른 물을 먹삼아 나는 세기의 하늘가에 이렇게 쓰여졌다.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보여거든 아이들의 웃음과 환희가 만발하는 여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오시라!

무궁병영할 내 조국의 앞날을 여기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에

다. 눈물과 울분의 이수라장으로 변한 진도앞바다를 그려보는 나의 눈앞에는 열일곱 꽃나이에 고향방향을 떠나 지역만리에서 고아마냥 헤매이던 불우한 지난날이 우뚝이 떠올랐다. 내역시 진도의 날바다에 버려진 꽃망울들처럼 이역땅에 내동댕이쳐진 인생이었다.

어찌보면 진도의 날바다에 수장된 꽃망울들은 《입양》과 《인력수출》의 미명하에 박정희가 이국땅에 내버린 꽃망울들의 분신일지도 모른다. 어제날 박정희 《정권》이 남녘땅에 뿌리를 둔 수천수만의 꽃망울들을 가지채로 못형 깬이 이역땅으로 팔아버렸다던 오늘을 박근혜 《정권》이 그리워 이어가고있다.

소위 《녀성정치》를 운운하며 살점들이 짓이겨져 형태도 알아볼수 없었다. 얼마나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으면 그렇게까지 되었겠는가. 술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그 어린것들은 자기 죽음에 이를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것이다. 아마 《세월》호에서 마치 막으로 울린 《기다리라》는 말로 순진하게 믿고있었을것이다.

《세월》호, 그것은 운항의 맛을 올릴 때부터 불행을 예고하였다. 아이들은 만재한 화물위에 덧쌓인 《인간화물》에 불과하였다. 하기에 선장과 선원들은 침몰하는 배에 그들을 남겨둔채 도망쳤고 당장 구원의 손길을 뻗칠것만 같던 직승기도 군함도 그들을 외면하였다.

거꾸로 뒤집힌 배가 완전히 바다에 가라앉기까지 2시간, 그 촌각을 다루는 속에서 구구조독권을 움켜쥔 간상배들은 살아숨쉬는 어린 생명들을 살인장부에 버티고 올려놓고 흥판을 벌렸다. 아직 피우지 못한 꿈을 안고 쓰러진 꽃망울들과 생애같은 자식들을 줄지어 잃은 부모들의 아픔을 외면한 박근혜는 《사파》는커녕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았고 청와대를 찾은 피해가족들을 마저 처벌하게 쫓아버렸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물론 미국의 《뉴욕타임스》, 《BBC》 등 세계의 언론들은 《세월》호의 어이없는 사고와 제2 《유신정권》의 리해할수 없는 무능력과 철권통치의 위대한 기념비이다. 송도원 푸른 청춘을 북삼아 동해의 푸른 물을 먹삼아 나는 세기의 하늘가에 이렇게 쓰여졌다.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보여거든 아이들의 웃음과 환희가 만발하는 여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오시라!

무궁병영할 내 조국의 앞날을 여기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에

다. 눈물과 울분의 이수라장으로 변한 진도앞바다를 그려보는 나의 눈앞에는 열일곱 꽃나이에 고향방향을 떠나 지역만리에서 고아마냥 헤매이던 불우한 지난날이 우뚝이 떠올랐다. 내역시 진도의 날바다에 버려진 꽃망울들처럼 이역땅에 내동댕이쳐진 인생이었다.

어찌보면 진도의 날바다에 수장된 꽃망울들은 《입양》과 《인력수출》의 미명하에 박정희가 이국땅에 내버린 꽃망울들의 분신일지도 모른다. 어제날 박정희 《정권》이 남녘땅에 뿌리를 둔 수천수만의 꽃망울들을 가지채로 못형 깬이 이역땅으로 팔아버렸다던 오늘을 박근혜 《정권》이 그리워 이어가고있다.

소위 《녀성정치》를 운운하며 살점들이 짓이겨져 형태도 알아볼수 없었다. 얼마나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으면 그렇게까지 되었겠는가. 술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그 어린것들은 자기 죽음에 이를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것이다. 아마 《세월》호에서 마치 막으로 울린 《기다리라》는 말로 순진하게 믿고있었을것이다.

《세월》호, 그것은 운항의 맛을 올릴 때부터 불행을 예고하였다. 아이들은 만재한 화물위에 덧쌓인 《인간화물》에 불과하였다. 하기에 선장과 선원들은 침몰하는 배에 그들을 남겨둔채 도망쳤고 당장 구원의 손길을 뻗칠것만 같던 직승기도 군함도 그들을 외면하였다.

거꾸로 뒤집힌 배가 완전히 바다에 가라앉기까지 2시간, 그 촌각을 다루는 속에서 구구조독권을 움켜쥔 간상배들은 살아숨쉬는 어린 생명들을 살인장부에 버티고 올려놓고 흥판을 벌렸다. 아직 피우지 못한 꿈을 안고 쓰러진 꽃망울들과 생애같은 자식들을 줄지어 잃은 부모들의 아픔을 외면한 박근혜는 《사파》는커녕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았고 청와대를 찾은 피해가족들을 마저 처벌하게 쫓아버렸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물론 미국의 《뉴욕타임스》, 《BBC》 등 세계의 언론들은 《세월》호의 어이없는 사고와 제2 《유신정권》의 리해할수 없는 무능력과 철권통치의 위대한 기념비이다. 송도원 푸른 청춘을 북삼아 동해의 푸른 물을 먹삼아 나는 세기의 하늘가에 이렇게 쓰여졌다.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보여거든 아이들의 웃음과 환희가 만발하는 여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오시라!

무궁병영할 내 조국의 앞날을 여기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에

다. 눈물과 울분의 이수라장으로 변한 진도앞바다를 그려보는 나의 눈앞에는 열일곱 꽃나이에 고향방향을 떠나 지역만리에서 고아마냥 헤매이던 불우한 지난날이 우뚝이 떠올랐다. 내역시 진도의 날바다에 버려진 꽃망울들처럼 이역땅에 내동댕이쳐진 인생이었다.

어찌보면 진도의 날바다에 수장된 꽃망울들은 《입양》과 《인력수출》의 미명하에 박정희가 이국땅에 내버린 꽃망울들의 분신일지도 모른다. 어제날 박정희 《정권》이 남녘땅에 뿌리를 둔 수천수만의 꽃망울들을 가지채로 못형 깬이 이역땅으로 팔아버렸다던 오늘을 박근혜 《정권》이 그리워 이어가고있다.

소위 《녀성정치》를 운운하며 살점들이 짓이겨져 형태도 알아볼수 없었다. 얼마나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으면 그렇게까지 되었겠는가. 술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그 어린것들은 자기 죽음에 이를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것이다. 아마 《세월》호에서 마치 막으로 울린 《기다리라》는 말로 순진하게 믿고있었을것이다.

《세월》호, 그것은 운항의 맛을 올릴 때부터 불행을 예고하였다. 아이들은 만재한 화물위에 덧쌓인 《인간화물》에 불과하였다. 하기에 선장과 선원들은 침몰하는 배에 그들을 남겨둔채 도망쳤고 당장 구원의 손길을 뻗칠것만 같던 직승기도 군함도 그들을 외면하였다.

거꾸로 뒤집힌 배가 완전히 바다에 가라앉기까지 2시간, 그 촌각을 다루는 속에서 구구조독권을 움켜쥔 간상배들은 살아숨쉬는 어린 생명들을 살인장부에 버티고 올려놓고 흥판을 벌렸다. 아직 피우지 못한 꿈을 안고 쓰러진 꽃망울들과 생애같은 자식들을 줄지어 잃은 부모들의 아픔을 외면한 박근혜는 《사파》는커녕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았고 청와대를 찾은 피해가족들을 마저 처벌하게 쫓아버렸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물론 미국의 《뉴욕타임스》, 《BBC》 등 세계의 언론들은 《세월》호의 어이없는 사고와 제2 《유신정권》

《세월》호참사와 《통일대박론》의 공통점

남조선에서 특대형사고인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때로부터 한달이 넘었다. 200여명의 고등학교학생들을 포함하여 300여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이 참사로 하여 지금 남조선에서는 사망하는 자식들과 부모형제를 잃은 유가족들의 목성이 그칠새 없이 울려나오고있다.

《내 자식을 살려내라.》는 피라는 절규가 터져오르고 《박근혜가 책임져라!》는 분노한 함성이 남녘의 거리마다에서 거대한 초볼로 라번지고있다.

이번 《세월》호참사는 돈밖에 모르는 황금만능의 남조선사회의 썩은 구조와 풍토가 초래한 필연적산물이다. 오직 리윤만을 추구하는 썩고 병든 사회에서 인간의 생명과 안전, 존엄과 가치는 애당초 설 자리가 없었다.

《세월》호는 《청해진해운》이라는 기업이 일본에서 근 20년 동안 운행하다가 수명이 다 된 중고선박을 수입하여 개조한 선박이었다. 중고선박을 수입한 《청해진해운》이 승객을 대 많이 태우기 위해 무리하게 객실을 증축하다니 무게중심이 51cm나 높아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 배가 기울어졌다 다시 바로 서는 능력인 《복원력》이 떨어졌지만 기업측은 그와는 상관없이 운항해마다 돈을 많이 받는 화물을 초과하여 실었다. 사고당시 《세월》호는 승용차를 비롯한 각종 차량 백수십대와

1 000여의 짐합 등 허용한계의 3배이상의 화물을 적재하였다. 보다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 배의 균형을 잡는데 꼭 필요한 물인 평형수를 적게 채워 배의 안전기준을 완전히 무시하였다.

《세월》호 출항당시 항구에 있는 질은 안개가 끼여 2시간나 출항시간이 지연되었다. 《세월》호가 늦어진 시간을 메우기 위해 처음부터 전속으로 전진하다가 물살이 빠른 진도앞바다수역을 최고속도로 통과한다고 배침몰된인후의 하나였다. 늦어진 시간으로 인한 리윤감소를 우려한 기업의 물지각한 행위가 불려온 비극이었다.

《세월》호참사는 인간의 생명보다 돈, 리윤을 추구하는것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얼마나 허망하며 리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에서 《인간》은 한낱 비용과 도구에 불과하다는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침몰당시 승객을 내버린채 탈출한 배의 선장과 선원들의 행동도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세월》호는 인건비절감을 위해 대부분의 선원들을 단계적 약식으로 채용하였다. 승객들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선장 역시 적은 월급을 받는 1년계약직이였으며 조라수 3명을 포함하여 선원들도 대부분 6개월~1년 기한의 계약직이었다. 언제 사에서 해고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바라

는것은 무리한 일이었다.

승무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한 문제였다. 《청해진해운》도 지난해에 선원안전교육비용으로 쓴 돈은 고작 54만여원, 1인당 4 000원정도였다. 반면에 광고선 전비로는 그 400배가 넘는 돈을 썼는가 하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접대비에도 엄청난 돈을 썼다고 한다.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구조작전이 제대로 안되고 늦어진것도 다 돈과 얽힌 얽힌 때문이었다.

남조선해양경찰은 침몰현장가까운 곳인 전라남도 목포와 완도에 6개나 있는 해양구조전문기업들을 배제한채 경기도 관교에 위치한 민간업체 《언딘》에 구조와 관련한 독점권을 주었다. 그후 《언딘》의 회사간부들이 해양경찰과 인적관계로 얽힌 기업이라는것이 밝혀지고 결국 작지 않은 액수의 구조비용을 독차지하려는 한 하나의 기업에 특혜를 준것 또한 돈때문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오직 돈을 바라고 벌리는 구조활동이라는 엉겁결에 인간의 생명을 기대할수 있겠는가.

《언딘》이 자기 회사 소속이 아닌 다른 민간구조업체의 구조를 해경과 함께 가라고고 저들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것은 실종자 유가족들의 증오와 격분만을 불러일으켰다.

이밖에도 《청해진해운》이 정

식 직원이 아닌 립시직승무원에게는 장례비를 지급할수 없다고 하였는가 하면 이동통신기업들은 사망한 승객들이 사용하던 사전회화금을 해제할 때 위약금을 내라고 하여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등 돈밖에 모르는 자본가들에게는 인간의 존엄도, 양심도, 체면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기에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언론들까지도 이번 사고를 《인간의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풍토가 불러온 인재》라고 일찌기하게 평가하였던것이다.

총체적으로 남조선에서 벌어진 이번 참사는 돈, 리윤추구가 불러온 비극이며 돈에 의해 모든것이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결국 일어날수 밖에 없는 일이다.

돈에 대한 탐욕이 초래한 《세월》호참사를 생각할 때 올해에 들어와 남조선에서 요란스럽게 울려나온 이른바 《통일대박》라평과도 비교하여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대박》이란 《청해진해운》, 《행운》이라는 뜻을 가진 남조선특유의 표현이다.

통일이라는 성스러운 민족사적목표에 《대박》이라는 말을 붙이는것자체가 우리 겨레의 통일위업실현투쟁에 대한 모독이 아닐수 없다. 돈으로 모든것을 유혹하고 돈이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저열하고도 추악한 속물적 근성이 진하게 배어있는 《통일대박》라평은 《통일대박론》의 제창자인 박근혜의 인간됨과 지

적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조국통일은 남조선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전국적법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숭고한 위업이다. 조국통일문제의 이러한 본질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통일을 도박군의 심리를 가지고 대하는것은 돈밖에 모르는 사회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그들의 세계관의 한계라고 볼수 있다.

박근혜의 본을 따라 온갖 어증이며증인들이 《통일비용》이냐, 《통일채권》이니, 《통일후실질소득》이니 하는것들을 자기편에 계산하느라고 분주히 수판알을 뒹기는것을 보면 가스room을 금할수 없다.

보수패당의 통일문제에 대한 그렇듯 속된 관점과 태도가 돈을 위해, 리윤을 위해 수백명의 무고한 생명을 차치한 날마다속에 수장시킨 《청해진해운》의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

돈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세월》호참사와 《통일대박론》. 결국 남조선사회의 자화상이라고 할수 있는 《세월》호참사와 그러한 특대형비극을 몰아온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제창하는 《통일대박론》의 진면모를 더욱더 만천하에 드러내보아야 한다.

체제대결의 흥심을 드러낸 전쟁선언

얼마전 괴뢰합동참모본부(제4차 합동성강화대토론회)를 열고 《제4세대전쟁》개념을 적용한 이른바 《통일을 위한 대북5단계군사전략》이라는 것을 공개하였다.

그에 의하면 《통일을 위한 대북5단계군사전략》은 전쟁개시와 함께 특수부대를 공화국에 침투시키고 현지 《우호세력》과 함께 내부에 혼란을 조성하는 단계, 공화국의 핵과 미사일 등을 제거하는 단계, 비무장지대를 둘러싸고 《우호세력》과 연결해 자유화지역을 확대하는 단계, 주민통제와 사회기반시설을 부수하는 《안정화단계》,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막기 위한 《반항세력》 제거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공화국과의 물결적인 군사적대결, 체제대결흥심을 드러낸 전쟁선언이 아닐수 없다.

서로 다른 사상과 계도가 존재하는 북남사이에 《통일을 위한 군사전략》이란 곧 전쟁을 의미할뿐이다.

이번에 박근혜패당이 그 무슨 《5단계군사전략》이라는 것을 공개한것은 공화국을 불의에 침공하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

그동안 박근혜패당이 《신뢰》, 《드레즈펜트》이니 하며 마치 북남관계와 통일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높아왔다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하지만 이 모든것이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가리우기 위한 한갖 기만에 불과하다는것이 더욱더 명백해졌다.

다 아는것처럼 오늘 박근혜

패당은 최악의 통치위기에 처해있다.

《세월》호참사로 인한 민심의 분노가 마침내 대대적인 반《정부》, 반박근혜투쟁으로 번져지고있다.

바로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박근혜패당은 북에 대한 군사적도발책동에 매달리고있다.

얼마전 《무인기사건》 조작에 이어 김희 《없어져야 할 나라》니 뭐니 하며 공화국을 걸고서 괴뢰국방부 대변인이라는 자의 망발이 그 뚜렷한 실례로 나타났다.

하기에 남조선언론들도 《국방부가 필요없이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북을 자극하는 안보장사를 하고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북침도발과 동족대결로 풍전등화의 신세에 놓인 저들의 가련한 신세를 지켜보려는 박근혜패당이야말로 민족의 제앙거리가 아닐수 없다.

박근혜패당은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알고 덤벼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마저 없는 미국의 한갖 식민주의군공에 불과한 오합지졸의 무리들이 그 무슨 《5단계군사전략》이니, 《제4세대전쟁》이니 하는것부터 웃음거리이고 하루강이지 범 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는 격의 어리석은 광란이 아닐수 없다.

박근혜패당은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그 순간이 끝난것 기만에 불과하다는것이 한구도 날뛰지 말아야 한다.

박철남

반통일세력이 몰아온 정치적라살

남조선의 전 《대통령》이었던 로무현이 사망한 때로부터 5년이 되었다.

알려진것처럼 로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사망은 그 어떤 우연적일인에 의한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민족자주, 림북통일기운이 급격히 고조되고 급격히체제력을 양성하는데 국도의 불안과 위기를 느낀 리명박패당이 의도적으로 감행한 정치적라살이며 통일민주세력을 강그리란 암살하기 위한 계획적이며 파쇼적인 음모가 빚어낸것이였다.

6.15통일시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매도하면서 권력의 자리에 오른 리명박패당은 10.4선언에서 서명한 로무현을 눈에 둔 가지처럼 여기면서 어떻게 하나 그들을 정치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장해버리고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2008년 11월부터 리명박의 지시를 받은 남조선검찰은

로무현의 형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그의 친구였던 박연차 《태광실업》 사장, 측근이었던 민주당(당시) 의원들과 책임당시의 청와대비서관들, 부인과 아들, 딸, 조카사위, 최한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소환조사하면서 그에게 압박을 가했다.

심지어 그를 공개적으로 불러내다가 모욕을 주는 등 2중3중의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

결국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몰아간것은 다른 어떤 리명박과 그의 하수인인 남조선검찰이라는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여론의 일치한 정론이다.

그가 사망한 날에 청와대의 홈페이지에는 《리명박씨 추하합니다.》,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등으로 타살행위의 장본인인 리명박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수백건이상의 글이 울랐으며 《한겨레》를 비롯한 남조선의 수많은 언론들은 《현 (정권)이 만든 최대의 비극》, 《비열한 정치적라살》이라고 사건의 진상을 고발하였다.

전국언론로동조합을 비롯한 단체들도 《MB (정권)과 검찰, 조종층의 유착으로 인한 로무현 전 (대통령)의 타살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청문회》를 열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은 그가 사망한 이후에도 남조선인민들의 림북통일기운이 높아지고 저들에게 불리한 정치적환경이 조성될 때마다 로무현과 관련한 사건들을 만들어내어 유가족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고통을 강요하였다.

있지도 않는 《로무현차명계좌》라는 명목하에 생전에 그가 조성한 《비자금》을 들춰내라고 하면서 명예를 또다시 훼손시켰는가 하면 지난 《대통령선거》때에 그는 그가 북남사외상부서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면서 끝까지 물고늘어지는 비열한짓도 서슴지 않았다.

그가 당한 정치적라살과 사후에도 계속된 그에 대한 박해는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어 저들의 나쁜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동족대결광신자들의 정체를 날날이 드러내보이고있다.

그러나 남조선보수패당은 오산하고있다.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발악으로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우리 겨레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6.15통일시대의 진전을 가로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통일본자, 동족대결세력의 죄행을 반드시 결산할것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최고 남조선에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부호전세력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20일 남조선해군경비들은 북측의 서남해상수역에서 정상적인 경계근무를 서던 공화국의 함선들에 무작정 총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였다. 이보다 앞서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은 미국가정보국국장을 끌어들이고 그 무슨 《핵위협》에 대비한 《대북공조》를 모의하였다. 그런가하면 남조선군부는 이날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기간중에 미국, 일본과의 《군사정보량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한 미국, 일본과의 국방장관회담을 벌리기로 하였다.

남로 무모해지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은 외세에 빌붙어 동족대결을 추구하면서 조선반도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 각계 단체들이 18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광주인민봉기 34돐을 기념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참가자들은 자주, 민주, 통일을 넘나하여 피흘려 싸운 광주의 봉기자들과 날바다에 무참히 수장된 학생들을 추모하였다.

발언자들은 남조선의 력사는 서글프게도 죽음의 문화

외세와의 《공조》로 얻을것이란

정세를 악화시키는 용납 못할 반민족적범죄행위가 아닐수 없다.

다 아는바와 같이 외세를 등에 업고 공화국을 해치려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의 무분별한 전쟁소동은 지금 국도에 이르고있다.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끝났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벌어지게 될 《울지 트리덤 가더너》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하여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이리저리러한 명목으로 벌리는 각종 북침전쟁준비소동으로 말미암아 북침전쟁에 맞춘 시한탄의 시침은 계속 돌아가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남조선해군경비들이 공화국의 서남

해상수역에서 북의 해군함정들을 향해 감행한 군사적도발소동은 그렇지 않아도 엄중한 조선반도정세를 전쟁경계로 더욱더 치닫게 하고있다.

이것도 성사지 않아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라는 어리석은 야망밑에 공화국을 먹어보겠다고 미국은 물론 제침의 기회만 노리는 일본까지 등에 업고 북침전쟁을 현실화하려 하고있다.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일방적으로 그 무슨 《군사정보량해각서》를 체결하려고 하는 범죄적책동이 그 단적실례이다.

조선민족의 피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상상도 못할 죄악

이 아닐수 없다.

지금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의 옛망을 실현해보겠다고 제침의 칼을 갈고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집단지자위권》행사에 조선반도 《유사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피해를 세우며 《집단지자위권》행사를 위한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은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에 환장이 된 나머지 《군사정보량해각서》라는것까지 만들어주어 일본에게 제침의 다리를 놓아주려 하고있다.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미일합작을 등에 업고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소동에 광분하는것은 그들이 처한 심각한

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갖 몸부림에 불과하다.

정보원과 공짜이바사행부의 《대선개입사건》과 같은 특대형부정행위로 권력을 가로챈 현 남조선보수 《정권》은 최근에 있는 려적선침물사고로 총체적인 붕괴상태에 처해있다. 이로부터 현 남조선보수당국은 지난 세기 50년대 《정권》붕괴상태에 있던 리승민역대 그 출로를 전쟁에서 찾은것처럼 동족대결과 전쟁에서 살길을 찾고있다.

그러나 력사의 교훈이 있다. 남조선의 정치력사가 보여주는것처럼 외세에 빌붙어 동족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던 민족반역자들의 종말은 언제나 비참하였다.

현 남조선당국이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대결에 광분할수록 그것은 그들의 파멸만을 재촉할뿐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력사적죄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광주의 영령들과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죽음을 잊지 말고 다시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싸워나가자고 그들은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북풍》조작에 매달리는 보수 《정권》

남조선에서 지방자치선거가 막두르고있는 지금 보수집권세력이 《북풍》조작책동에 더욱 피눈이 되어 매달리고있다.

이미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설이라는 모략적인 조사결과를 꾸며내고 공화국의 존엄높은 체제까지 마구 모욕하는 특대형도발을 일삼는 보수집권세력은 지금 《북핵실험》이니 뭐니 하며 또다시 《북풍》조작에 매달리고있다.

얼마전에도 통일부 장관 류길재가 해외에 나가 《북의 내번체 핵실험을 위한 움직임》이니,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니 뭐니 하고 또다시 동족을 걸고들었다.

한편 보수언론들도 《북의 선거개입》이니, 《남남갈등》이니 하면서 보수당국의 정치선지, 여운나팔수가 되어 《북풍》몰이를 하고있다.

이것은 동족을 걸고 《안보위기》를 조성하여 우익 보수세력을 집결시키는 한편 민심을 오도하여 지방자치선거에서 지지표를 끌어

모으기 위한 불순한 음모책동이다.

집권위기와 선거때마다 《북풍》소동을 일으키는것은 남조선의 려대 반역 《정권》들이 써먹던 상투적인 수법이다.

보수집권세력이 2010년 6월 지방자치선거때 특대형남공화국보락구인 《천안》호 사건을 조작하고 그 누구의 《어뢰공격》이니 뭐니 하고 떠들면서 《북풍》소동을 일으킨것은 잘 알려져있다.

제18대 《대통령》선거때에도 보수집권세력은 정계자 저들에게 불리해지자 최대일점지역인 조선해 5개 섬일대에서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일으키는가 하면 미국과 야합하여 전쟁방기를 부리다 못해 북남수화회담에서 논의된 문제들까지 외무당조하여 민심과 여론을 오도하여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였다.

다가오는 지방자치선거를 앞둔 지금 남조선정국은 보수집권세력에 불리하게 호르고있다.

남조선 각계는 《세월》호참사로 여지없이 드러난 당

국의 무능력과 반인민적책동에 침을 뱉고 보수집권세력의 통치를 끝장낼 의지를 표명하면서 반박근혜, 반《정부》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고있다.

이것이 보수집권세력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으로 되고있는가 하는것은 더 논할 필요가 없다.

이로 하여 국도의 불안을 느낀 보수당국은 민심의 이목목을 탄대로 돌리고 선거구면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뒤바꿀 총계밑에 《북풍》을 조작하려고 발광하고있는것이다.

최근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고있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도 그런 계획과 떼어놓고 볼수 없다.

얼마전 남조선합동참모 본부는 《제4차 합동성강화대토론회》에서 《제4세대전쟁》개념을 적용한 《통일을 위한 대북5단계군사전략》이라는것을 공개하였다.

군부호전세력은 이에 대해 《통일을 위한 전쟁은 군사적응수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제한이 있고 북주민

의 지지를 획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제4세대전쟁》은 비군사적수단을 활용해 적진을 교란시키고 전쟁수행의 지를 약화시키는 개념》이라고 떠들어댔다.

최근에도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은 조선서해 서남해상수역에서 정상적인 경계근무를 수행하던 공화국의 함선에 무작정 총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였다.

현실은 보수집권세력이야말로 불순한 정치적야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도발과 모략도 꺼리낌없이 감행하는 극악한 대결광신자들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박근혜 보수집권 세력이 《북풍》소동으로 그 무엇을 얻으려는것은 헛된 망상이다. 서풍처럼 《북풍》조작놀음이 통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북풍》은 더이상 보수세력의 호신부가 아니다.

보수집권세력은 발악적인 《북풍》소동이 결국 통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김연희

《유신》으로 되돌아가려는 현 《정부》의 력사적퇴행을 막아야 한다

남조선 각계 단체들이 주장

모두가 다시 일어나 국민 생명은 안중에 없이 권

로 얼룩졌으며 국민은 지금까지 생명경시의 풍조속에서 살아왔다고 개탄하였다.

력대 독재 《정권》들을 이은 박근혜 《정권》은 국민을 지배하는 구조로서 권력유지를 위해 민중의 목숨따위는 언제든지 죽일수도 버릴수도 있는 사악한 《정권》이라고 단죄하였다.

이번 《세월》호참사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성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난하였다.

집권자가 보여준 무책임한 행위는 무엇이라고 말할수 없다고 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장본인은 응당한 징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16일 남조선법원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1969년 《유신》독재 《정권》이 민주인사들을 《국가전복 및 내란》음모에 걸고 구속처형한 사건을 말한다.

이번에 남조선법원은 사건피해자들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오랜 기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폭행과 고문 등 각종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이로 인한 허위자백을 하게 된 사실과 사건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데로부터 이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리게 되었다고 한다.

과거 《유신》독재 《정권》시기 《간첩사건》이라는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어처

《유신정권》을 평가하는 모략집단

구없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산 증거로 된다.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은 《유신》독재시대에 조작된 수많은 《간첩단》사건들중의 하나이다.

당시 《유신정권》은 파쇼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

은 한편 남조선인민들의 림북통일기운을 말살하기 위해 수많은 《간첩사건》들을 조작해왔던것이다.

《유신》독재자가 력사의 심판을 받은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도 남조선에서는 《유신》독재시기에 조작된 수많은 《간첩사건》들의 진상이 똑바로 밝혀지지 못하고있다. 그로 하여

없을 사람들이 《보안법》의 회색물이 되어 철창속에 끌려가고있는것이 오늘 남조선의 비참한 현실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박근혜패당을 가리켜 《희살아나는 (유신) 독재의 망명》, 《현대판마녀사냥》, 《(유신) 독재에로의 회귀》 등으로 단죄규탄하고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박근혜패당이야말로 남조선전역을 피로 물들이며 파쇼와 독재를 일삼아온 《유신정권》을 평가하는 모략집단이, 파쇼강대무리이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유신》부활책동에 매달리는 박근혜패당에게 반드시 준엄한 철수를 내리고야말것이다.

전철호



남조선에서 6.4지방자치선거가 다가오면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각종 공약들을 랍발하며 민심의 표를 얻기 위해 무진애를 쓰고있다. 그런데 그들이 내놓은 공약들이란 따지고보면 현 집권자가 지난 《대선》때 내놓은 공약들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말하자면 실현 불가능한 공약들을 내놓고있는 것이다.

왜 그렇지 않았는가. 그것도 그렇것이 현 집권자가 지난 《대선》때 내놓은 공약들이란 빗줄은 개살구로 지금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이행된것이란 없다.

다른것은 제쳐놓고라도 생명안전분야만을 보자. 《대선》때 박근혜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대선》시 약속했던 《예방중심의 선제적재난관리 및 재난 대응》이니,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이니 하는것은 모두 《빈껍데기》 뿐이고 이를 위해 존재한다는 중앙안전재난대책위원회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허수아비에 불과하였다.

특히 분산된 업무를 일원화해 《통합재난시스템을 구축》한다느니, 《안전》이 《국정》 주요가치로 되게 하

최근 남조선에서 박근혜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있다.

그중에서도 여성들, 특히 40대의 여성들에서 박근혜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다고 한다.

지극히 엉망진창 결과라고 할수 있다.

남조선의 진도앞바다에서 일어난 대형러객선침몰사고로 자식들을 잃은 어머니들의 대다수가 40대 여성들이다.

이들로 말하면 지난 《대선》때 박근혜에 지지표를 던져준 유권자들이다. 여기에는 《여성대통령》이라는 일정한 기대가 따라섰기때문

제버린 《공약》, 거짓말 《정부》

졌거나 하고 인민들과 철석같이 약속하였다. 지금까지 잘못 만난 《정부》 탓으로 수많은 재난과 생명위협을 가시발길을 걸어온 남조선인민들에게는 정말로 귀가 번쩍 열리는 소리였다. 또 박근혜 자신은 이에 대해 회개가 있을 때마다 얼마나 강조해왔는가.

그러나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이후 남조선당국의 대응을 놓고보면 《대선》시 약속했던 《예방중심의 선제적재난관리 및 재난 대응》이니,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이니 하는것은 모두 《빈껍데기》 뿐이고 이를 위해 존재한다는 중앙안전재난대책위원회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허수아비에 불과하였다.

주요책임공약중 하나였던 경제민주화도 마찬가지이다. 박근혜는 《대선공약》으

리다. 하지만 순진한 이들의 《믿음》에 박근혜는 과연 어떻게 《보답》했는가. 대형러객선침몰사고와 관련한 박근혜의 태도를 놓고 보자.

더 이상 지켜볼것도, 기대할것도 없다

이번 러객선침몰사고로 희생된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학생들이다. 부모들의 바래움속에 수학여행을 떠났던 학생들이 꽃망울도 피워보지 못한채 생죽음을 당한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권》 때

로 내세웠던 반값등록금실현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어느것 하나 특특히 실현한것은 없고 오히려 투자자금을 빚내고 공약을 줄줄이 파기해버렸는가 하면 《생애주기형 맞춤형 복지》라는것은 《대선》이 끝나자 곧 휴지통에 구겨박아버졌고 자본이 재벌에게 더욱더 집중되게 눈감아주고 비호하는 놀음도 서슴지 않았다.

《주권과 안보를 확실하게 지키겠다》며 《2015년 전 시작전전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 하겠다던 공약도 현실적치름 채던지고 상선에 겨 더 연기해달라고 예결부결하였다.

정말이지 《대통령》이 되면 다 하겠다던 박근혜의 말은 헛되고 헛된 말장난에 불과했다. 보라빛 꿈을 피워올리던 《국민행복시대》, 《국민안전시대》는 그야말로 《국민불안시대》, 《국민살인시대》로 화했고 《경제민주화》는 《경제파쇼화》로 전락되었다.

인민들을 현혹시키던 달콤한 공약은 결국 권력을 탈취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권력을 휘둘러 인민들을 파쇼독재의 머슴으로 만들려는 독재자의 권모술수에 지나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지금 수많은 남조선인민들이 《그래도》라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안고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지지표를 던진 지난 《대선》때의 자기자신을 질책하며 후회하는 눈물을 흘리고있었는가.

하지만 이에겐 아랑곳없이 지금 《새누리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민심의 버림을 받아 심판대에 오른 박근혜의 공약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또다시 인민들을 기

대할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남조선녀성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결국 이러한 민심이 여론조사결과에 그대로 반영된것이다. 지금 40대 여성들만이 아닌 수많은 여성들은 《박근혜를 뽑은것이 후회된다》, 《손을 잘라버리고싶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로 심판하겠다》고 하면서 반 《정부》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민심의 버림을 받은 박근혜 《정권》이 려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한 사실이다.

미국상징을 끌어들이며 온갖 야양을 다 떨며 잔치를 차리는 매국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세상에 이런 몰인정하고 페롤페더한 악녀가 또 어디에 있으며 이를 용납할 어머니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이제 더 이상 지켜볼것도

만하여보려고 하고있다. 짐승도 한번 빠졌던 함정에 두번다시 빠지지 않는 법이다. 《새누리당》이 아무리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며 현란한 공약들을 랍발해도 남조선인민들이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을 믿고 그에 지지표를 던졌다가 이제는 눈 편히 뜨고 꽃타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바다속에 수장해버렸다면 오늘과 매일에는 또 어떤 거짓말공약에 속아 지지표를 넣었다가 참변을 겪을지 알수 없다.

하기에 지금 각계각층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이번 6.4지방자치선거를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 인민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독선과 거짓으로 가득찬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도록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그것이 다가오는 지방자치선거에서 그대로 증명될것이다.

본사기자 김련옥

기대할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남조선녀성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결국 이러한 민심이 여론조사결과에 그대로 반영된것이다.

지금 40대 여성들만이 아닌 수많은 여성들은 《박근혜를 뽑은것이 후회된다》, 《손을 잘라버리고싶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로 심판하겠다》고 하면서 반 《정부》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민심의 버림을 받은 박근혜 《정권》이 려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한 사실이다.

미국상징을 끌어들이며 온갖 야양을 다 떨며 잔치를 차리는 매국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세상에 이런 몰인정하고 페롤페더한 악녀가 또 어디에 있으며 이를 용납할 어머니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이제 더 이상 지켜볼것도

나어린 청소년들도 《투표장》으로

최근 남조선에서 6월에 있게 될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10대의 청소년들이 《자체투표》를 통해 《청소년들을 위한 시장, 교육감》을 뽑겠다고 밝혀 여론의 주목을 끌고있다.

남조선의 5개의 청소년단체들로 무어진 《선거권을 위한 시민연대》는 얼마전 서울의 한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회 6.4지방선거청소년투표》를 실시한다고 선언하였다.

청소년투표는 지방자치선거 후보자등록 마감 다음날인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손전화기와 인터넷등을 통해 실시되며 인천과 대구를 비롯하여 5개의 시, 도에서 선거가 출마한 시, 도지사 교육감후보에게 《모의투표》를 한다고 한다.

원래 남조선에서는 정치에 대한 활발하고 주권성으로 하여 선거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 《투표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무슨 이유로 《투표율》을 주장하며 이번 지방자치선거에 《자체투표》를 할 결심을 내렸는가 하는것이다.

《(세월) 호 참사의 가장 큰 피해자인 청소년들이 가

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것을 알기에 제1회 (6.4 지방선거) 청소년투표를 실시한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면, 오늘은 다른 오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반인민적악과 무능력, 무책임으로 《세월》호 참사를 빚어내고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앗아간 현 《당국》에 대한 항거, 바로 이것이

였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도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현 보수집권세력을 기어아 심판하고 반역통치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돌이켜보면 김주열학성의 죽음이나 4.19인민봉기를 일으킨 기록제가 되었고 리한렬학성의 희생이 6월인민항쟁을 더욱 고조에 이르게 하였다.

민심은 천심이다. 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수백명의 나어린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보수세력들을 파멸의 구렁렁이로 더욱 깊숙이 몰아넣고있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아말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박근혜 뒤늦은 눈물, 연출이 심했다.》, 《대통령의 눈물이 너무 작위적이다.》, 《그동안 한번도 안올더니, 선거의식한 국면전환용》, 《박근혜의 눈물, 명백한 선거 광고방송》, 《악어의 눈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지난 19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박근혜가 흘린 눈물에 대한 남조선각계의 반영이다.

박근혜가 TV앞에 나타나 눈물을 보였으나 대중이 거기에 공감하기는커녕 야유와 비난을 쏟아내며 고있는것이다. 그것은 그 눈물이 거짓과 위선의 눈물이기 때문이다.

사고발생당시 《대통령》이 만사를 전폐하고 모든 인적, 물적장비를 총동원하여 승객들을 구조했다면 이번 대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것이다.

하지만 그가 취한 대책이란 뜬금없는 소리만 뉘척대고 위태로운 권력의 자리를 지키려 책임을 아래것들에게 밀어던지다 못해 언론을 리용하여 기만극이나 연출한것밖에 없었다. 지어 그 와중에 대양건너 상전까지 보셔다 갖은 교태와 예교를 부리며 제리속만 차리었다.

수많은 학부모들과 사람들이 그토록 애가라게 아이들을 구출해달라고 호소하는것을 눈을 편히 뜨고 지켜보면서도 그는 눈물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은 추모집회에 나선 청소년들이 돈을 받고 동원되었다느니 뭐니 하여 운운하되 집회에 나선 나어린 그들을 마구 련행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남조선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에게도 《투표권》을 달라고 웨치며 《자체투표》를 실시하기로 한것은 반역 《정권》의 썩은 정치에 대한 분노와 항거의 표시이다.

비단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도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현 보수집권세력을 기어아 심판하고 반역통치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돌이켜보면 김주열학성의 죽음이나 4.19인민봉기를 일으킨 기록제가 되었고 리한렬학성의 희생이 6월인민항쟁을 더욱 고조에 이르게 하였다.

민심은 천심이다. 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수백명의 나어린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보수세력들을 파멸의 구렁렁이로 더욱 깊숙이 몰아넣고있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아말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박근혜 뒤늦은 눈물, 연출이 심했다.》, 《대통령의 눈물이 너무 작위적이다.》, 《그동안 한번도 안올더니, 선거의식한 국면전환용》, 《박근혜의 눈물, 명백한 선거 광고방송》, 《악어의 눈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지난 19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박근혜가 흘린 눈물에 대한 남조선각계의 반영이다.

박근혜가 TV앞에 나타나 눈물을 보였으나 대중이 거기에 공감하기는커녕 야유와 비난을 쏟아내며 고있는것이다. 그것은 그 눈물이 거짓과 위선의 눈물이기 때문이다.

사고발생당시 《대통령》이 만사를 전폐하고 모든 인적, 물적장비를 총동원하여 승객들을 구조했다면 이번 대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것이다.

하지만 그가 취한 대책이란 뜬금없는 소리만 뉘척대고 위태로운 권력의 자리를 지키려 책임을 아래것들에게 밀어던지다 못해 언론을 리용하여 기만극이나 연출한것밖에 없었다. 지어 그 와중에 대양건너 상전까지 보셔다 갖은 교태와 예교를 부리며 제리속만 차리었다.

수많은 학부모들과 사람들이 그토록 애가라게 아이들을 구출해달라고 호소하는것을 눈을 편히 뜨고 지켜보면서도 그는 눈물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은 추모집회에 나선 청소년들이 돈을 받고 동원되었다느니 뭐니 하여 운운하되 집회에 나선 나어린 그들을 마구 련행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남조선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에게도 《투표권》을 달라고 웨치며 《자체투표》를 실시하기로 한것은 반역 《정권》의 썩은 정치에 대한 분노와 항거의 표시이다.

비단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도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현 보수집권세력을 기어아 심판하고 반역통치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돌이켜보면 김주열학성의 죽음이나 4.19인민봉기를 일으킨 기록제가 되었고 리한렬학성의 희생이 6월인민항쟁을 더욱 고조에 이르게 하였다.

민심은 천심이다. 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수백명의 나어린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보수세력들을 파멸의 구렁렁이로 더욱 깊숙이 몰아넣고있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아말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지난 19일 남조선에서 대형러객선침몰사고와 관련한 박근혜의 《대국민담화》가 진행되었다. 여기서 그는 《최종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그리고 눈물까지 흘리었다. 어찌보면 마치 진정성이 있는 속죄의 마음같아보인다. 하지만 여러 사실들은 그것이 한갓 기만극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알려진것처럼 지금 남조선에서는 러객선침몰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집권자의 사과와 퇴진 등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반 《정부》집회와 시위가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있다. 지난 17일과 18일에도 서울과 광주, 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아이들을 돌려달라!》, 《특별법을 제정하라!》, 《가만히 있으라!》는 구호를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벌리었다.

그런데 박근혜페당은 수많은 경찰부력을 동원하여 시위자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무자비하게 탄압하던 끝에 이틀동안에 무려 200여명에 달하는 시위자들을 강제연행해가는 파쇼적폭거를 저질렀다.

당국의 검은 손길은 지어 《세월》호 유가족들에까지 미치고있다.

바로 박근혜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날에 유가족 30여명이 진도에 있는 실종자가족을 만나러 가던 도중 정체불명의 사람들로부터 미행당하고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추적결과 경찰서 소속 확보형사들이라는것이 확증되었다.

결국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요, 《책임》이요 하지만 뒤에서는 부당한 탄압과 감시놀음만 일삼고있는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가 아니라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뒤에서는 탄압과 감시에 응하는 탄압과 감시의 이중적인 태도야말로 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우롱이다.

독사가 아무리 허울을 벗어도 독사의 본성이 변할수는 없듯이 《유신》의 파조를 타고난 박근혜의 파쇼적기질과 본성은 절대로 달라질수 없는 법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박근혜의 눈물을 두고 《선거의식한 국면전환용》, 《명백한 선거광고방송》, 《악어의 눈물》, 《눈물이 불법사찰로 돌아오는 세상》이라고 아우조소하는것은 너무나 엉망진창이다.

파쇼와 독재를 일삼는 박근혜가 청와대에 있는 한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계속될수밖에 없다는것이 바로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본사기자 김철호

가 투쟁이 되어 비인간적이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권》을 단죄구탄하고있다.

남조선 곳곳에서 《세월》호참사는 사고가 아니라 학살이라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으며 무능하고 부패한 박근혜 《정권》이 아이들을 차디찬 바다물속에 수장해버렸

다고 성토하고있다. 《세월》호참사에서 보여준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무감각을 보며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고 하면서 박근혜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있으며 녀성들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들을 위해 더는 소리

없이 울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하고있다. 지난 5월 17일 서울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한 목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온전한 《정부》가 아니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은 온전한 《대통령》이 아니다.》고 하면서 《이 《정부》는 진

심이 없어, 진정성이 없어. 그래서 말할수 없다.》며 지식인과 종교인, 시민들이 모두 일어서야 한다고 웨쳤다.

창원시에서 진행된 《초불추모제》에서는 《이 나라 《정부》가, 《대통령》이, 경찰이 제대로 된 나라였다면 304명의 고귀한 생명을 떠나보내지 않아도 되었다.》며 《무능한 《정부》

능과 총체적인 부실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관계자 몇명을 꼬리자르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현 《정권》과 그 수장인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로 표현할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울분을 토했다.

남조선의 한 출판물에는 이런 글이 실리었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단평 《악어의 눈물》

이번 《대국민담화》에서 박근혜는 최종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면서도 실지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의 무책임, 무관심, 무능에 관한 추궁내용은 한문자도 없이 실지 모른 책임을 《해경》에 전가해버리고말았다.

그러나 진정어린 자기반성이 없고 책임도 아래에 모두 전가시킨 변변스러운 박근혜의 눈물을 사람들이 《악어의 눈물》이라고 함은 너무나 당연한것이다. 희생자들의 시신이 아직도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있는데도 눈물만 살짝 보이고는 나 몰라 하며 해외나들에게 나섰던 위선자가 바로 박

근혜이다. 권지혜

가 304명의 고귀한 생명을 차가운 바다속으로 밀어넣었고 무책임한 《대통령》은 고귀한 생명을 단 한명도 구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여

남조선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한 성원은 《소중한 아이들이 바다속으로 가라 앉으니까 동시에 《정부》의 무

능과 총체적인 부실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관계자 몇명을 꼬리자르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현 《정권》과 그 수장인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로 표현할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울분을 토했다.

남조선의 한 출판물에는 이런 글이 실리었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남조선의 민주로총 진상규명과 특별법제정을 요구하여 시국통성

다.》는 망발을 웨쳐냈다고 비난하였다. 《세월》호참사는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 자본과 결탁한 권력이 빚어냈다고 하면서 이래로 간단타면 철도, 병원, 학교, 공장, 건설현장 등 모든 곳에서 억울한 죽음이 계속될것이라고 까박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려는 국민을 《불순한 시위군》으로 몰아대는 당국에 더이상 기대할것이 없다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퇴진할 때까지 투쟁할것이라고 단언해 강조했다.

본사기자



